

멕시코

Laguna Verde原電 運開前査察을 IAEA에 要請

Laguna Verde- 1號 플랜트는 建設이 完了되었으나 9월에 있을 IAEA 調査團의 査察이 끝날 때까지는 稼動되지 않을 것이다.

이 674.5MW의 GE社 BWR의 建設과 試驗은 이미 지난 7월 13日 完了되었으나 7月初에 Miguel(De La Madrid)멕시코大統領은 IAEA 調査團에 의한 訓練 및 運轉節次에 대한 評價가 끝날 때까지는 이 플랜트에 대한 使用許可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發表하였다. 大統領官邸代辯人은 이와 같은 措置를 取하게 된것은 政治的인 理由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IAEA의 査察이 이 플랜트의 安全性에 대해 憂慮를 나타내고 있는 國民들의 不安을 鎮靜시킬수 있는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IAEA本部의 한 代辯人은 멕시코가 이 플랜트의 安全運轉에 대한 査察을 9月中旬에 實施해 줄것을 要請했다고 말했다. 10~12名으로 構成된 IAEA 調査團이 멕시코沿岸의 Veracruz市

北方 40마일에 位置한 이 플랜트를 約3週日間 踏査하여 플랜트의 性能, 運轉守則, 品質管理에 關한 모든 面을 檢討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이번의 査察은 運轉節次的 品質를 評價하는데 必要한 細部的인 設計事項을 除하고는 建設工事의 品質을 一般的인 方法으로는 檢討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代辯人은 「이번 일은 純全히 諮問의 性格을 띤 것으로 우리는 規制者의 立場이 아니라 이 플랜트가 얼마나 잘 稼動될 것인가에 대해 獨自의인 意見을 傳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aguna Verde 플랜트 두 유니트의 現在 價格은 利子包含 35億弗이며 지난 3月初의 入札價格인 23億弗보다 훨씬 커졌다고 멕시코의 한 代辯人이 말했다. 資金問題로 現在 建設工事가 50% 進陟돼 있는 2號機는 工事가 遲延되고 있으나 1990年の 燃料裝填目標達成은 아직 可望이 있다.

유고

Croatia共和國에서 原電建設 推進中

유고의 行政府인 聯邦執行委員會(FEC)는 原子力플랜트 建設을 2000년까지 留保시키고 이를 國民投票에 回附시킬 法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法律家들은 이러한 留保措置가 採擇되는 경우 이는 準自治下의 各 共和國(一部 共和國들은 原子力 選好)에서 支持하고 있는 原子力프로

젝트를 禁止시키는 結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問題를 놓고 論爭을 벌이고 있다. 한편 計劃中인 次期の Croatia共和國의 Prevlaka 플랜트 原子爐 入札書에 대한 評價作業은 計劃대로 現在 進行中이다.

政府消息通에 의하면 FEC는 「1986~2000年